

## 研究室의 문을 두드려본다

# 國際水準의 權威를 자랑하는 人口問題研究所

### 1. 設立經緯

人口問題研究所는 1864年7月 “國立人口問題研究所設置”에 關한 對 政府建議案이 國會에서 萬場一致로 可決됨으로써 脚光을 받기 始作하여, 滿 1年만인 翌年 7월에 經常費를 國庫에서 補助한다는 前提로 經濟企劃院主管下에 社團法人으로 設立된 研究機關이다.

그러나 國庫補助는 2年間 있었을 뿐이 미 끊어졌고 現在는 外援 學術用役 有志 贊助 및 會費로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 2. 研究所의 組織

오늘날 人口現象은 매우 重要性을 띠고 있으며 單純히 人口學者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들이 許多하다.

그래서 同研究所를 經濟·社會·統計·等의 社會科學分野와 科學·保健·衛生 等의 自然科學系 分野가 同時에 共存·統合된 機關이라야 그機能을 다할 수 있다는 見地에서 特히 諮問機關으로 研究委員會를 두고 있다.

同委員會는 社會科學과 自然科學 分野의 著명한 大學教授·機關者·實務者들로 構成되어 있어 研究課題에 따라 動員되게끔 되어 있다.

人口問題研究所의 組織核心은 研究部이며 第1·第2로 區分되고 있다. 第1 研究部에는 推計課·移動課·分布課의 課가 있고 第2研究部에는 政策課·人力課·資質課가 있어 研究에 從事하고 있으며 此外에 總務課와 資料課가 있다.

### 3. 研究業績

上記한바와 같은 組織을 갖인 同 研究所에서는 많은 研究實績인 刊行物을 낼바 있다.

定期刊行物로는 “人口問題論集”을 年2 회에 걸쳐 刊行하고 있으며 이미 13號를 出刊한바 있다.

內容은 매우 아카데미학하게 水準이 높아 外國에서도 好評을 받고 있다.

所長은 널리 門戶를 開放하여 同誌의 主旨에 맞는 學術論文이면 誰何이건 歡迎하고 있다.

한편 人口와 直接·間接으로 關聯되어 있는 外國論文等を 번역하여 年한 卷의 번역본이 發刊되고 있다.

同譯書의 책이름을 1별하면 “人口成長과 經濟發展” “後進國의 人口問題” “人口政策과 出生力調節” “人口過剩과 그 問題點” “亞細亞 및 中東諸國의 人口事情” “人口成長이 터어키經濟에 미치는 影響” 등이 있고, “世界人口”란 題號 아래 유엔의 人口年鑑抄譯이 곧 發刊될 豫定이다.

調査·研究의 結晶體인 發刊物中에 “人口動態統計改善方案”(1967·6刊)은 出生死亡·結婚·離婚·移動等の 登錄制度의 改革案을 提示한 것으로 政府에서 同案의 實施를 위한 試驗事業을 調査統計局을 통해 現在 推進하고 있다.

또 1967年 12月發刊한 “우리나라 人口와 關聯된 科學技術系人力의 綜合的 調査研究”는 菊刊 7百餘面の 龍大한 책으로서, 從來의 學歷·經歷에 의한 職業 및 技術水準 區分方法을 止揚하고 國際職業分

類法에 規定된 週期的이고도 科學的인 分類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採擇하여 엮어낸 책이다. 그밖에도 “國家安全上 必要한 科學技術委員確保의 適正限界 研究를 비롯 “人口 및 雇傭·賃金에 關한 調査研究” “人力需給模型에 關한 調査研究” “特殊人力의 長·短期 所要推計 및 그의 養成方案” “人口變動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研究” “生産性 向上과 雇傭構造와의 相關性研究”等 많은 研究實績을 남기고 있다.

### 4. 實績으로본 國際的位置

一般的으로 人口問題研究所라면 所謂 狹意의 出生·死亡·人口將來推計等만을 研究한다고 認識하기 쉬우나 이研究는 前記한바와같이 다보 넓은 分野, 即 人口와 關聯된 經濟·社會·文化·保健·科學等 多方面의 研究를 綜合的으로 하고 있는 機關이다.

아마 이만큼 廣範圍이하면서도 깊이 있게 着實한 研究調査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民間研究機關도 別로 없을 것이며 外國에서도 흔히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는 數年前 國際會議에서 韓國의 人口問題研究所가 基礎的 研究調査의 範疇를 벗어난 훨씬 多角度로 人口問題와 關聯해서 各分野를 權威있게 하는데 對해 驚嘆과 讚辭를 보내왔다는 事實로도 證明된다. 따라서 人口問題 研究分野에서 國際的으로 公認을 받고 있는 機關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活潑한 研究活動에 비해 研究費나 經常費가 적어, 運營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研究機關과 그 事情이 다를바 없다. 그러나 研究所長 邊時敏氏는 從前의 研究方式을 繼續推進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既히 調査收錄된 많은 貴重한 研究資料가 널리 開放되어 有効하게 利用되었으면 希望하고 있다.

所在 서울특별시

中區忠武路5街20-29